

# 2021년 수지기쁨의교회 설명절 가정예배

■ 인도 : 가족대표

이 시간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.

- 신앙고백 ----- 사 도 신 경 ----- 다 같 이
- 찬 송 ----- 찬 43장 ----- 다 같 이
- 기 도 ----- 가족 중에서
- 성경봉독 ----- 시편 25편 12~14절 (구약 p818) ----- 인 도 자

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 
 13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 
 14 여호와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 
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

- 말 씀 ----- 인 도 자

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. 이번 명절은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, 그렇기에 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. "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."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설날에는 복을 빌고, 서로를 축복합니다. 이와 같이 '복'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. 시 25편에서도 복에 대해 말씀하며,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.

## 1. 택할 길을 아는 복을 주십니다.

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.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성과 경험만으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. 전능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.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록 다른 면에서 부족할 지라도,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께 붙들림을 받습니다.

## 2.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복을 주십니다.

세상의 부요나 형통은 우리에게 잠깐의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편리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우리의 처한 환경이 바뀌면 세상의 평안은 사라집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입니다.

## 3. 하나님께서 친밀히 대하시고 그 증거로 언약을 주십니다.

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.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. 그 약속은 신실해서 변함이 없습니다. 우리 모두 구원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. 올 한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, 서로에 대해 섬기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.

- 축복과 격려 ----- 다 같 이  
 ※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. 2020년을 그 어느 해보다도 지혜롭고, 용기있게 살아가도록 서로 마음을 다해서 격려해 주세요
- 찬 양 ----- 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----- 다 같 이
- 예배마침 ----- 주 기 도 문 ----- 다 같 이